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포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요나

불완전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 (은. 3:1-10)

God's Miracle Through an Incomplete Jonah (Jonah 3:1-1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 바와 같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벧후 3:18).



박노철 목사

The ultimate purpose of every human being is written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hich is to glorify God and please Him forever. In order to glorify and please God, we must, first of all, improve our knowledge of Him. If we do not know who and what God is, we cannot glorify and please Him.

The Apostle Peter asked us the following in his last letter: "But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forever! Amen." (2 Peter 3:18).

1.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만약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알파한 속임수를 써서 자기 뺨에 스스로 걸린 아굽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는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 사명을 완수한 요나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살게 된 요나,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고, 겨우 하루 동안만 회개를 외쳤습니다(4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성으로 외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왕까지도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 옷을 입고 회개했으며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악한 길과 인생의 강포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언제나 구원 받은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은 백성들의 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들의 마음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미 준비된 심령 가운데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인 복음 증거를 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The God who gives Jonah a second chance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a second time."

So the Lord gave Jonah another chance. Jonah had rejected His command, run away from Him, and gotten swallowed into the belly of a fish. If the Lord wasn't a God who gave second chances, there would be no one who would be able to come to the place of grace. We would continuously repeat our mistakes and failures at home, at work, and especially in our life of faith. But there is a grace which the Lord gives, a second chance for those who will confess their sin.

Our God gave a second chance to Jacob, who was caught in a trap that he himself made, because of his foolish tricks; to David who had committed adultery with the wife of his loyal man and committed murder; and to Peter, who had denied Jesus Christ two times and had even cursed Him.

2. Jonah, who accomplished his mission

Jonah, who was in the place of death, but came to life by complaining about it in his mind, finally went to Nineveh. However, he only proclaimed his message for one day (4). However, surprisingly, the Ninevites heard the message that Jonah proclaimed in a slovenly way, confessed their sins, and came to the Lord. Even the king rose from his throne,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confessed his sins, and came to the Lord. Moreover, he proclaimed a fast for the people, and did not even let any animal eat or drink. This was a very sincere confession in which they gave up their evil ways, and their violent life.

God always uses saved people as an instrument to save souls. God wants to proclaim His gospel through the mouths of saved people.

God has prepared, in this world, the minds of people who will be saved. Our only job is to proclaim the gospel to them. That is exactly the work that we must do, sowing the seed of the gospel and harvesting the crops in the midst of souls that have already been prepared.

My beloved Christians!

Despite our incompleteness, we must look to the God who accomplishes His complete will through us. If we decide to take the gospel and go out into the world, God will use us as the means of salvation.

By relying only on our God and proclaiming His gospel as our ultimate missio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who lead many people into the way of salva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1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참가신청

오늘 신청서 마감 - 사무국에 제출

올해 단기선교팀지도 박종민 목사, 단장 이강진 집사(은 선교지역을 방글라데시로 정하고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수도 다카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비는 1인당 약150만원으로 자비량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는 4월10일까지 사무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열악한 환경의



나라이며, 국민의 99%가 이슬람과 힌두교도로서 주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조남혜 선교사(어린이 사역), 박진영 및 김미성 선교사(의료사역), 현지인인 스브로도 바로이 목사(다카장로 교회)가 활발히 선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단기선교에 서울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가하여 서울교회가 세계선교의 중심에 우뚝 서길 바란다.

이웃 일본에 구호품 전달

남녀 아동 내의 4,500점

지난 4월5일(화), 우리교회 선교위원회(위원장 신용식 장로)는 지진과 방사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지진 난민들에게 구호품(남, 녀, 아동 내의 4,500점)을 허창범·현미순 선교사에게 전달하였다. 일본이 비록 독도 문제와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방류로 파문을 일으키지만 일본의 상황을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느끼며 무너진 그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15회 화요 정오 음악회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제15회 화요 정오음악회가 4월12일(화)부터 5월24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정오 분당(관람은 3층)에서 열린다.

이번주는 이은 오르간 독주회가 있다.

- 이은 / 오르간
- 비엔나 시립음대 학사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졸업
- 독일 뉘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국제 오르간 콩쿨 August Humer 1위 없는 2위 입상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서울음악교실 수료식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길 원하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서울 음악교실 6기가 지난 3월 6일(주)에 개강하여 6주 코스로 발성법, 호흡법 및 음악이론 전반을 공부하였다. 오늘 찬양예배시에 수료식을 갖는다. 서울음악교실은 다음주에 개강한다.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유선아 공경택 박경진 곽오숙 박현미 이풍우 권혁만 김현송 안치영 최은희 김지연7 김정숙8 문남이 한성희 홍미선 김유근 오상수 이혜순 양금숙 서운영 최봉희 이원석 최미경 김춘기 장승은 최춘숙 이인철 곽태수 전성은 김기욱 윤형준 김경애2 신호용 정혜영 이순중 김소현 김진현3 윤금숙 양옥희 김은숙6 유영신 송행희 수료자 42명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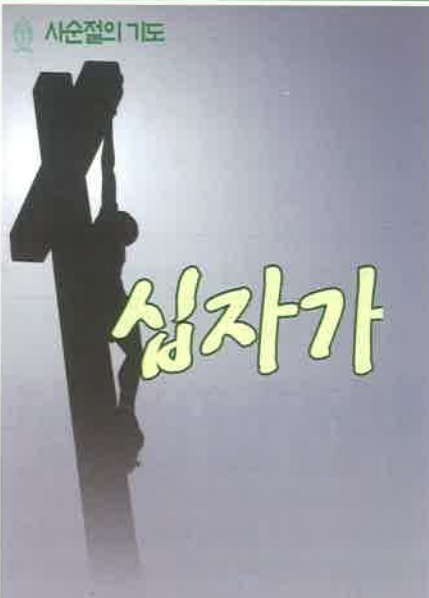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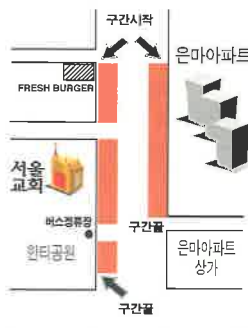
우리교회 제1권사회(회장:김예환 권사)에서는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상시운영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동안 기증받은 물건이 많이 소진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도들 가정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나눔의 집에서 한 점당 1,000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선한 일에 사용된다. 성도들의 많은 기증을 기다린다.

도로변 주차안내

2009년 9월 15일(화) 강남구청 주차정책 설명회에서 삼성로는 주일 노변주차가 현재 한티공원 앞에서 맞은 편 은마아파트 앞 노변까지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정된 바 있다. 성도들은 주일예배 시간에 버스정류장(정류장 표기 좌우 20M)과 진출입로를 피해 주차관리심감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기 바란다. 새가족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도로변 주차가 여의치 않은 성도들은 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회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 달리신 심자가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한 극형,
모욕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모멸감,
수치 가운데
더한 수치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심자가 죽음.

나의 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
믿지 않는 죄.

그 모든 죄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
하. 나. 님.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지켜 보시면서
침묵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침묵을 헤아리게 하시고,
심자가에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소윤경 집사(12교구)

한국장로교역사박물관 건립

한국장로교회의 뿌리를 찾아

한장총은 한국장로교총회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장로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10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칼빈의 성경적 개혁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는 한국인에 의해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세워진 후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알렌과 언더우드와 한국에 오면서 그 뿌리를 내리고, 1907년 대부흥운동과 함께 급성장하였으며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구성하여 오늘날의 장로교에 이르렀다.

이에 한장총은 2012년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될 장로교 총회의 뿌리를 찾아 그 흔적들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한편, 세계 중심에 선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를 국내외에 나누어줄 연구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한국장로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0년 3월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한 한장총은 같은 해 5월 추진위원장에 이종윤 목사, 위원으로 양병희 목사, 오덕교 목사, 이흥



4월8일(금) 육군외관에서 설교중인 이종윤 원로목사

순 장로, 김경래 장로, 태초 장로를 선임하고 지난 8일(금), 육군외관에서 장로교 29개 교단 총회장과 총무, 추진위원, 한장총 임원, 상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물관 건립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추진위원장인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사에 드문 하나님의 축

복과 은혜 속에 성장했고 발전했으며 그 큰 은혜의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물려주어야 한다.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사라면 그 역사의 실체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의 흔적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전수시킬 책임을 가지고 장로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개교회, 개교단, 개별신학교가 이미 역사 박물관을 건립 또는 추진하고 있지만 하나의 장로교

“

**역사의 흔적들
후손에게 전수
세계교회 미래
비전 제시
장로교 정체성 확립**

”

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장로교회29개 교단이 연합하여 각각 받은 은총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것이 민족과 세계교회 앞에 행할 도리로 생각한다. 이번 박물관 건립은 한국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더욱 충실하여 한 몸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라고 하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을 당부했다.

박물관측은 이미 칼빈 관련자료와 16-17세기 장로교 신학자 관련 자료, 웨스트민스터 총회 자료, 한국 장로교 총회, 노회 및 교회 회의자료, 한국 선교초기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통해 더욱 활발한 수집활동을 벌여 2012년 한국장로교 100주년 사진전 개최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건립될 한국장로교역사박물관이 기독교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세계교회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귀중한 역사 자료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에 한국의 모든 장로교인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취재 : 허숙 권사(편집부)



평양 장대현교회



1907년 평양 각성교회



다락방 소개

어느새 서로서로 닮아가는 다락방

김동진 집사 (13교구17다락방)

"분위기가 있는 가을이 멋져요."
"추위가 사라지고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이 좋던데요."
"맘껏 베퉴 수 있는 여름이 최고예요."

좋아하는 계절도, 식성도, 취향도, 성격도 가지각색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아니었으면 쉽게 하나가 됐을까 싶게 개성 강한 우리지만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를 사모하며 만나다 보니 어느새 서로서로를 닮아가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면 닮는다는 진리.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락방은 다짐한다. 성경 일독하기, 주간성경공부, 새벽기도, 노트에 기도과 설교 말씀적기. '기도에 승리하자고, 말씀에 승리하자고'. 그리하여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되어



자 심방, 중보 기도제목 생기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기도대장 권사님, 새로 들어온 신입 다락방원 어색할까 봐 수요예배도, 점심도, 등산도 함께 하시는 사랑 많은 친교담당 집사님, 멀리 이사 간 마포에서 매주 참석하시며 성경 공부 때마다 요절 임송과 간증으로 도전을 주시는 집사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제일 먼저 다락방 예배 도착하여 웃으며 맞이하

는, 나누기 좋아하고 눈물도 감동도 많은 예쁜 집사님, 조용하고 차분하게 다락방원 돌보시며 다락방에 배 일정 챙기시는 부다락방장 집사님, 오랜 해외 생활로 멋진 테이블 세팅과 메뉴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재주 많은 집사님.

이렇게 서로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는 특별새벽기도회도, 성경읽기도, 바자회도, 릴레이기도회도 전원 참석이다. 은혜 받고 도전받고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사랑스럽고 또 보고싶기 때문이다. 연말이면 우리만의 파티를 마련해 지난 한 해 주신 감사를 나누며 웃고 울며 새로운 각오를 새긴다. 참 귀하고도 감사한 시간들이다. 이사로, 발령으로 적지 않은 식구들이 올 봄 나누어지지만 우리는 믿는다. 나뉘는 것도 성장이라고.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더 크게 자라는 거라고. 중국으로 발령받아 떠난 집사님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우리 다락방에서 배운 사랑 품고, 중국의 어린 영혼 섬기고 돌아올게요."

선교보고 - 말라위 ①

말라위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금년도 우기철은 작년과 달리 비가 적당한 강격으로 충분히 내리서 옥수수와 콩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한 주님의 은총을 어제와 다르게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서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어 달 후에 어린이 영양식 공장이 가동되면 일년 내내 콩이 필요하니까요.



말라위 마칸디 진료소

주식인 옥수수 풀 떡이나마 그나마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물가가 올라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어떻게 사무치게 와 닿는지요. ‘부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세상의 법칙이 되어 버린 죄로 물든 세상에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의인이 더 많아 지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29:7)

말라위 국민의 90퍼센트가 농부이고 지금은 춘궁기의 복판에 있는 터라 한 톨도 없는 시골 사람들로서는 아파도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히 마칸디 진료소는 무상으로 치료해 주고 약도 공짜로 준다는 입 소문이 퍼져서 저희 진료소는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이들이 약봉지를 받아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시신 컨테이너가 잘 도착하였습니다

다. 그 안에는 비누와 어린이 영양식을 제조하는 기계들이 들어 있었고 신발 4,000족과 타이어, 텐트, 빵 튀기 기계, 그 밖에 서울교회에서 모아서 보낸 의류 등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복음서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사랑의 음식’이란 이름의 맛있는 영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 가난한 나라의 시골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구슬땀을 흘려 재배한 곡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주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말라위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라위에서 김용진 선교사 올림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지휘자 심상희권사는 공주 사범대와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했으며 러시아 그네신아카데미와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및 이태리 국제음악 아카데미와 모차르트 음악원에서 합창지휘연수를 받았다. 오르가니스트 최수황 성도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과 일본 무사시노 음악 대학원을 졸업(오르간전공/석사)하고 미국의 뉴저지 럿거스 주립대 음악 대학원(오르간전공/박사)을 졸업하였다. 피아니스트 이승민집사는 이스턴 미시간 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피아노와 반주전공을 하였다. 오늘은 'Midnight Cry [한밤중 주의 부르심] (Chuck Day and Grey Day)' 등 세곡을 하나님께 드린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일(월) 한국장로교 일교단 다체제를 위한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한다. 한국교회 현실 타개를 위한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13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례모임에서 설교한다. 14일(목)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전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15일(금) 한국장로교 총회 창립 100주년 준비 목사, 장로 3000명 초청 특별기도회에서 격려사를 한다.
- 이갑진 장로는 4월14일(목)~18일(월) 중앙 아시아 기독교인 모임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출장기간 중 지역 민간 목사들과 군 선교 세미나를 갖는다.
- 연주회 : 고요한 성도(대학부) “해금, 고요한의 무대” 4월 15일(금) 오후 7시30분 상설무대 우리소리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4.10) 에스더전도회(4.17)
- 금주의 식사제공 : 15교구 박홍래 집사 우미란 집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제 39회 학술공개세미나

『한국교회』를 진단한다

2011년 5월 23일(월) 오후 2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목사)은 국내외 기독교적 학술발전을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하여 석학들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회나 사회가 성경적, 신학적 해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찾아 학술세미나를 공개강연 형태로 갖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자인 기독교학술원포럼을 발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며 도서출판을 하여 목회자들의 학문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첨예화된 한국신학계의 모퉁이들이 되어 연합을 이루어 무너져가는 서구신학과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제3세계 신학을 다시 세우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주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10호
전화 : (02) 754-0376~4 팩스 : (02) 742-5889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종윤 원로목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많은 사역을 위하여
2.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사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3. 다락방 모임과 금요심야기도회의 부흥을 위하여
4. 일본 교회에 기증한 구호품을 통해 복음의 접촉이 일어나기를
5. 복음화 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